

“표면처리 30년 외길… 절박한 심정으로 글로벌 노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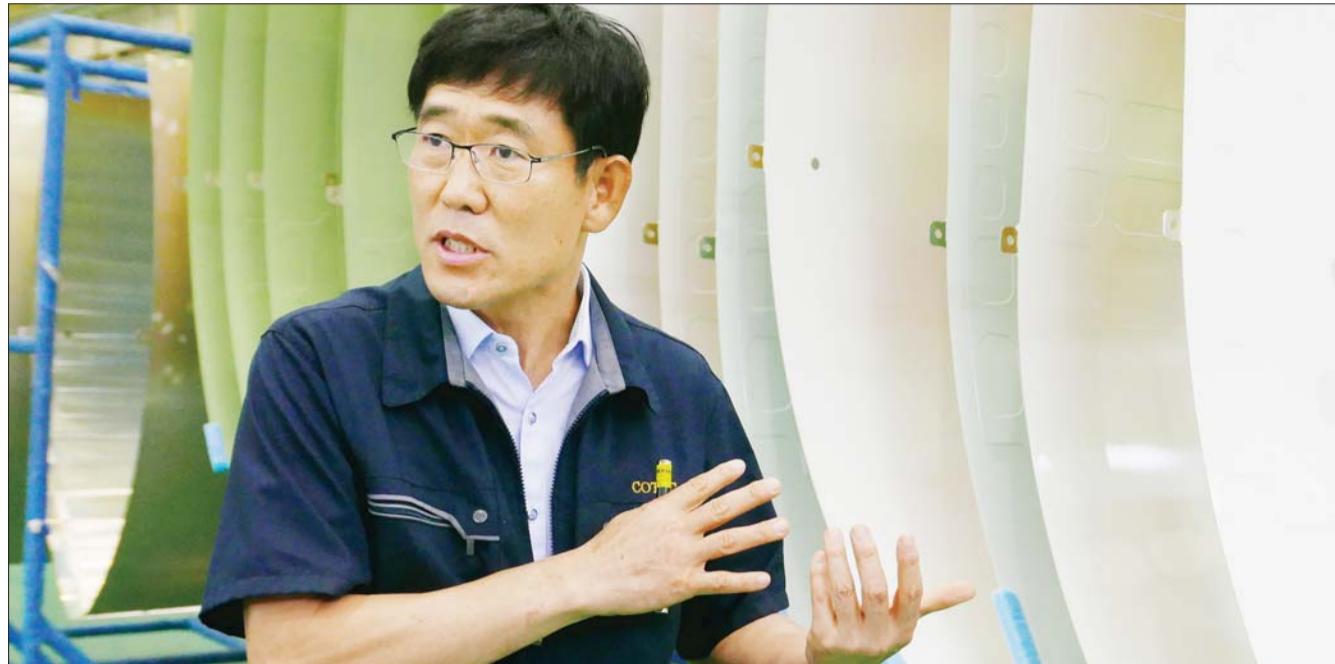
메트로가 만난 기업
최 주 원 코텍 대표

사천·경남 창원에 공장 3곳 운영
방산·우주항공 등 연매출 453억
에어버스·보잉 등 中서 제조 준비
글로벌 750조 시장… 韓, 고작 5조

“글로벌 항공기 시장은 520조원(2014년)에서 720조원(2023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민수, 방산 등을 다 합쳐도 현재 고작 5조원 수준 밖에 되질 않는다. 항공산업은 임가공이 대부분이고 자동화가 불가능해 인건비가 절대적이지만 임금이 비싼 우린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 정책도 의문스럽다.”

경남 사천에 있는 항공기 부품 표면처리 회사인 코텍 최주원 대표가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지 못해 기자에게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면서 전한 말이다.

1989년 설립해 30년간 표면처리 외길을 걸어온 코텍은 현재 사천과 경남 창원에 총 3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방산, 우주항공, 자동차, IT 관련 부품의 표면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코텍 최주원 대표가 경남 사천에 있는 공장에서 표면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항공기 부품을 주로 가공하는 사천공장은 보잉과 에어버스 등의 일부 모델 날개에 들어가는 제품을 도금, 특수도금 등의 기술을 적용, 표면처리해 조립회사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항공기 날개와 그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다루는 공장이라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누가봐도 비행기 날개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최 대표는 “코텍이 1개월에 처리하는 부품 갯수만 약 4만 2000개”라면서 “이 정도가 항공기 날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니 항공기 전체적으로 몇 개의 제품이 들어가는지는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것(웃

음)”이라고 귀뜸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453억원의 매출을 올린 한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항공기 완제품 제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항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현실은 뉘룩치 않다. 민항기, 군용기, 그리고 항공부품 등을 포함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단가싸움’에서 살아남기를 쉽지 않아서다.

최 대표는 “에어버스나 보잉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항공기의 50% 가량을 소

비하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제조에 들어갈 준비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에어버스나 보잉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신형 비행기에 대해 제조원기를 40% 가량 낮추려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항공기 제조 메이저 업체들은 단가 인하를 위해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에 물량을 발주하거나 아예 협작법인을 설립, 현지화에 나서고 있다. 멕시코,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또 기술력에 강

점을 갖고 있는 나라별로 전문화를 꾀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트렌드다. 비행기 동체를 가볍게 만드는 특수플라스틱이나 배터리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이 대표적이다.

최 대표는 “세계 항공기 시장의 물량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에겐 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특히 한국은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설계하면 이것을 받아 가공만하는 등 ‘기술’은 없고 ‘가공’만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상당수의 나라들이 목매고 있는 항공 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장이 일천하고 기업들도 작은데 기술력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쉽지 않고 정부 정책은 비전이 없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다.

그는 이런 현실이 하도 답답해 정부 관계자에게 항공산업단지 활용도 제고, 투자자금 장기자리 대출 등의 건의를 했더니 “산업간 형평성 때문에 항공산업만 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데 괴소드도 전해졌다.

이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최 대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은 이제 해외에서 먹거리 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글로벌 시장은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 정책은 희망이 없으나 우리라도 해외에서 살아 남아야한다는 절박한 심정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천(경남)=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환절기 ‘호흡기 질환’ 빨간불 규칙적 생활·집안 환기 작은 실천 부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호흡기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각종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다. 기관지염, 알레르기 성 비염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9월부터 11월에 사이에 비염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절기에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생활 속 환경 위생 관리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정 내 청결 관리를 신경 써야 집먼지 진드기로부터 생기는 알레르기나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피할 수 있다.

환절기라도 낮 동안 더위가 지속돼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도 추위 때문에 창문을 닫고 잠을 자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에 신경쓰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와 주방의 휘발성 화합물로 내부 공기가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와 순환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환기해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해야 한다. 단, 잠들어 있는 동안 체온이 떨어져 아침에는 한기로 인한 감기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기상 후 1시

9~11월 비염환자 급증
에어컨 가동 후 수시로 환기하고
2주에 한번씩 침구류 세탁·건조
땀 흘린 뒤엔 마르기 전에 씻어야

간 뒤에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베개와 이불커버, 침대 패드는 최소 2주에 한 번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세탁하고, 건조시킬 때에는 헛볕에 널어 살균 소독하면서 말려 관리한다. 침구는 화학 소재 보다 천연 소재의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화학 소재의 침구는 정전기 발생이 잦아 먼지와 집먼지 진드기를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투습성이 좋고 위생적인 면, 텐셀, 모달 등의 친환경 섬유 침구 사용을 추천한다.

환절기에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만,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어 체온 유지에 소홀하기가 쉽다. 목 주위의 온도와 습도가 갑자기 변하면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실내에

서 천천히 운동량을 늘리고, 땀을 흘린 뒤에는 마르기 전에 바로 씻어야 한다. 야외 활동이 불가피하다면 새벽 시간 대는 피하고 얇은 옷을 겹겹이 입어 보온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마른 기침 증상으로 목이 간지러워 일부러 기침을 세게 하거나 ‘큼큼’ 하는 소리를 내며 목을 가다듬는 행위는 목 점막을 혹사시키는 행위다. 목 안 쪽이 간지러울 때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신 뒤 코와 입에 따뜻한 김을 쐬는 ‘온 습포 짐짓’로 완화할 수 있다. 그 외에 멘톨 성분의 사탕을 먹거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면 기관지의 피로를 줄이고 호흡기 점막의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절기에 잘 걸리는 감기는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며, 단순하지만 만만하게 볼 병은 아니다”며 “특히 이 시기에 어린이나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AI·IoT·빅데이터 총망라 ‘스마트 편의점’

GS리테일, GS25 테스트 점포 오픈
안면인식 등 총 13가지 신기술 실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키워드들이 총망라된 스마트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가 마곡 사이언스파크 LG CNS 본사 내 연구동 3층에 스마트 GS25를 테스트 점포로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 GS25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출입문 개폐 ▲상품 이미지 인식 방식의 스마트 스캐너 ▲팔림새 분석을 통한 자동 발주 시스템 ▲상품 품절을 알려주는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등과 관련한 LG CNS의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 기술 테스트가 이뤄진다.

GS리테일은 이번에 오픈한 스마트 GS25를 통해 연말까지 총 13가지의 신기술을 실증, 보완하여 향후 점포에 적용함으로 가맹점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점포의 출입문은 첨단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개폐된다. 출입문 옆에 있는 안면 인식 카메라를 통해 사전 등록 절차를 마친 LG CNS 연구소 임직원들은 출입이 가능하며 안면 인식을 통한 상품 결제도 가능하다.

스마트 GS25의 셀프 결제 시스템은 바코드 스캔을 통해 상품을 한 개씩 결제하는 방식에서 진일보한 최첨단 이미지 인식 결제 시스템이다. 고객이 고른 상품을 직접 셀프 결제 테이블에 올려 놓으면 스마트 스캐너가 이미지와 무게를 감지하여 1초 내에 여러 개의 상품을 한번에 스캔한다. 이후 고객은 안면 인식 인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고객이 다섯 개의 상품을 골랐을 경우 기존 바코드 스캔 방식으로는 상품을 차례로 스캔하므로 약 15초 정도가 소요됐는데 스마트 스캐너를 이용하면 1초에 스캔이 가능하다. 향후 상용화가 됐을 때 고객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편 점포 근무자는 상품 스캔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므로 고객에게 시선을 맞추며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응대가 가능해진다.

또한 발주는 상품의 팔림새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주 적용 로직이 생성되어 자동으로 이뤄진다. 현재 GS25 가맹점에도 자동 발주 로직이 일부 적용되어 있는데, 가맹점 운영자가 최종 발주 수량을 확정 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이미 폭넓게 상용화된 상태다.

점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 영상 장비도 동원됐다. 상품이 진열된 매대에는 센서와 적외선 촬영 장비가 상품 간 진열 거리와 이미지를 인식한 후 점포 운영자에게 매대 상품이 품절 되었음을 알려준다. 점포 근무자는 이를 통해 빠른 보충 진열이 가능해 점포 매출 기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